

●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09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시험장 갔는데 시험지 안 준다"...2030 분노 키운 이유	사회	주요뉴스
2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4만 달러' 시대?...국민 체감은 왜	경제	주요뉴스

(1) 기사/뉴스 요약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나선 건 대학생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입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왜 유독 2030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참정권 시위에서 2030 청년 세대가 공통으로 자주 언급한 단어는 '공정'입니다.

[최선우/서울 강동구 :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공정해야 할 투표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청년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에서 이념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위 참가 시민 :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두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최초의 세대.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자라는 내내 극한 경쟁에 내몰려야 했던 청년 세대에겐 투명한 평가 기준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이번 선관위 사태를 보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충격이죠. 나이든 세대가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분노감을 느꼈을 것이다.]

공동체의 미래를 논하는 선거에서 그동안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요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통한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던 청년들이 투표에서마저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 때가 되면 청년이라든지 미래 세대 얘기하지만 효능감이 잘 없었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강한 권리 이런 부분들을 침해 당했다...]

입시와 취업의 문턱에서 0.1점 차로 승패가 갈려온 청년들에게 '절차의 공정성'은 공동체의 근간을 지탱하는 규칙입니다.

[이신화/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제적 불만이나 기성 세대에 누적된 불신이 겹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정치적 메시지를 오히려 기성 세대한테 준 것 같아요.]

공정을 생존의 문제로 여기는 2030 청년 세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핵심: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나선 건 대학생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로,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생산과 소득이 모두 크게 성장했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이를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제 지표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인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3만 6천900달러였습니다.

1인당 GNI는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건데, 12년째 3만 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일본과 타이완을 앞서기도 했지만 지난해 다시 역전당했습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질지 1분기 우리 상황을 보겠습니다.

생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국내총생산, GDP는 전 분기보다 1.8%,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늘었습니다.

국민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인 실질 GNI는 1년 전보다 13.2%나 늘어 GDP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생산이 늘어난 것보다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 얘기입니다.

특히 물가와 가격 변화까지 포함한 명목 수치로 보면, 생산과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성장을 보인 건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같은 양을 팔아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난 소득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늘어난 소득을 들여다보면 기업 몫은 지난해에 비해 29.9% 늘었지만, 근로자 몫은 6.9%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가계의 소득 개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셈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 세수 확보는 확실한 만큼 양극화를 막고 낙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당장 내 삶이 좋아졌냐라고 느끼시는 분들의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고물가로 인해서 특히 이제 고통을 심하게 받는 계층들에 대한 재정 정책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은 올해는 1인당 GNI가 4만 달러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 실적과 원/달러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핵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생산과 소득이 모두 크게 성장했지만, 경제 지표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인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 일일 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플라밍고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알바니아의 무인도 사잔섬과 인근 즈베르네츠 해안가에 설립하려는 16억 달러 (약 2조 4000억 원) 규모의 초호화 리조트 개발사업에 반발하며 2026년 6월 1일부터 일어난 시위를 말한다. 리조트가 들어설 곳이 플라밍고 물범, 바다거북 등의 산란지가 있는 습지보호구역 일대라는 점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여기에 해당 개발사업이 환경보호 평가나 주민공청회도 없이 기초공사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데이터랜드	튀르키예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레픽 아나돌 부부가 공동 설립한 세계 최초의 생성형 AI 미술관으로, 2026년 6월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개관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